ቪ ዩ ሬ ኔ ቶ

〈 성전보수 기금마련을 위한 기도 〉

주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낙후된 성전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모아, 성전 보수 기금 마련을 준비합니다. 저희의 계획과 수고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의 평안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금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정성이 모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보금자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메.





교우 여러분, 정성 어린 주일헌금, 교무금, 감사헌금에 감사드립니다. 단 1달러라도 소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하느님의 사업에 잘 쓰겠씁니다. 아래 현황은 한미 공동체 단일 어카운트로써 모든 헌금과 교무금은 같은 어카운트로 들어갑니다.

이번달부터 매달 교우분들께 재정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OLM 본당 재정 보고서			
수입		지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주일헌금및 2차헌금	17,577	급여, 보험금, payroll	12,935.79
부활절 감사헌금	11,385	컴퓨터프로그램 연간 이용료	1,175.04
교무금	7,140	조경외 maintenance	850
기타수입	5,643	엘리베이터 관리 및 수리	3,023.00
		화재보험등 보험료	5,020.09
		Utility	4,619.09
		냉난방공사 대금 일부	38,284.50
		미사 전례용품	973.62
		교구 납부금	2,879.00
		기타(비품,구독,전화 등)	3,193.49
합계	41,745	합계	72,953.62
		손익/손실	-31,208.62

부활 제6주일

2025년 5월 25일



에디슨한인처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미사 시간 안내

평일(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묵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 (10:30AM~4: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 본당부제 오현주 요한

은퇴/종신부제 최승웅 미카엘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염기선 베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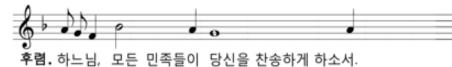




〈이번 주 전례안내〉

제 1독서 사도행전 15,1-2.22-29

화답송 시편 67(66),2-3.5.6과 8(◎ 4 참조)



제 2독서 요한 묵시록 21,10-14.22-23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파격 244

복음 요한 14.23 ㄴ-29

#성가 입당 493 봉헌 511, 512 성체 164, 163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가족 오석건(안토니오) • 이금자(비비안) - 김 스텔라 • 우승희(크리스티나) - 우(가브리엘) • 오병하(마오로) - 오요한

• 오화남 - 최안토니아 서현주(데레사) • 장인석 - 장아폴로니아

• 오용덕(헨리코) - Raphael & Catherine 장아폴로니아

★ 미사지향 (생미사)

• 전병국(스테파노) 신부님 전설자(안젤라) 심인자(안나) 썸머셋 구역원

박지영(카타리나) 가정 -박정화(요셉) • 이대우(베드로) 이데레사 - 오요하

• 염은미(글라라) - 가족

- 가족 장아폴로니아 • 김영필(안토니오)

• 백영숙(헬렌)

오세실리아 - 장아폴로니아 • 박애순(마리안나) - 성미카엘라 • 조정혜(릿따) - 가족

• 윤준희(안드레아) 구윤미(율리아)

오용운(토마스아퀴나스) - 황우식(안토니오) - 토레스 가족

• Dianne Sloan • 김도용(스테파노)

황태진(필립보) 황옥자(데레사) 김순옥(율리아) • 박정화(요셉)

김세현(스텔라) - 최안토니아

• 변상민(에드워드) & 변상원(제임스) 가정

박정훈(베드로) 가정 - 변태용(요셉)

• 방숙자(마리요안나)

최영옥(모니카) - 써머셋구역 • 황우식 (안토니오) 가정 - 야구부회 - 김성일(베드로) • 홍주연 (안나) • 전옥주(글라라) - 순교자들의 모후 Pr. 김성일(베드로)

• 한복동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 변인순(엘리자벳) • 2025 성령대회를 위하여 - 성령기도회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5/18 주일헌금. .\$1,061(128명) • 5/18 2차헌금. ..\$282 • 감사헌금. .최위숙(\$200) • 교무금.. ...\$1,060 곽신규(3~4) 김영숙(5~6) 안청자(6) 최위숙(5) 허종(5)

새로오신분, 방문해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 ☀️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 성당(채플)은 성체가 모셔져 있으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염은미(클라라) 곽 율리안나 김삼식(베드로)

🜟 5월 성모성월 기도지향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미사시작 30분전부터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네째주일(5/26):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 친교 봉사 일정

6/15 사우스브런스윅 7/20 썸머셋 8/17 에디슨 9/21 올드브릿지 10/19 이스트 브런스윅 11/16 피스브릿지 12/21 노스브런스윅 1/18 럿거스 2/15 먼로 3/15 메타천+노스에디슨

ᄎ 5월 빵과 포도주 봉헌

5월25일 이막동, 박정숙

🜟 메타쳔 구역모임

일시/장소: 5월 25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써머셋 구역모임

일시/장소: 5월 25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이냐시오 영성 2박3일 침묵피정

시간: 6월20일(금) - 6월22(일)

장소: Loyola Jesuit Center, Morristown, NJ 주최: 뉴욕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NYKCLC)

피정비: \$375 (신청 마감: 6월 7일) 피정문의: 조현실 테오도라 732-865-1550

* Shiloh Camp

시간/장소: 7/29 ~ 7/31 / Hewitt in NJ, 대상: 14 ~ 17살 청년 문의/신청마감일: email quovadis@diometuchen.org / 6월30일

2025 Bishop's Annual Appeal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5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본당 목표금액은 \$39,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지난주까지 약정된 금액은 \$36,451,60 (목표금액의 93.70%)입니다.

🜟 경전읽기

성경을 읽으며 성경과 관련된 고전에 담긴 깊은 뜻을 새겨보는 강의입니다.

매주 화요일 낮 12 -1시 친교실 / 강의: 유병기 베네딕도

ᄎ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쒸워주세요.
-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 바닥 청소
-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단속 확인 바랍니다.
- 성당안의 가전제품이나 큰가구를 버릴시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미리 상의해주세요.

말씀밝전湖

* 제 1독서 사도행전 15,1-2,22-29

그 무렵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그때에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빠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 묵시록 21,10-14,22-23 * 제 2독서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양이 그곳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14.23ㄴ-29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검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배탁천 교구 곳郑 / 카도문 / 카타

〈 부활삼종기도 〉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메.

〈 성모 성월 기도 〉

마리아의 노래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잉태하신 뒤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셨다.

그때 엘리사벳의 찬양을 받으시고, 성모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송하신 노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